

사회

# “불법 징수 기성회비 폐지하라”

## 전남대 등 전국 대학생 “기성회 의결 중단” 시위

### 반환 청구 소송 나서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이 대학 기성회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남대 학생들은 21일 오후 대학본부 앞에서 ‘기성회 예산안 의결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는 기성회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며 기성회 예산안 심의·통과를 반대했다.

이들은 또 “대학의 임의 징수가 불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성회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과하게 책정돼 강제로 걷어질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대는 21일 오후 5시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성회 이사회의를 개최, 기성회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기성회비는 1심 판결 전에 이미 책정돼 학생들에게 고지됐다”면서 “특히 확정 판결이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정된 등록금 절차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료 벽화 그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 ‘좋은세상만들기’가 기성회비 반환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전남대 재학생 및 졸업생(시효 미완성 대상자)을 대상으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인단’ 1000명 모집에 나섰다.

또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과 국민본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올해 1학기 국공립대 등록금에는 여전히 기성회비가 포함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에 권고만 내리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전남대와 서울대 8개 국·공립대학교 학생 4200여명이 “기성회비의 무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배구대회 후원금 유흥비로 ‘핑퐁’

## 행사지원금 등 지자체 지원 공금 횡령 전남배구협 전무이사 등 들 구속기소

배구단체 임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배구대회 후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21일 행사지원금 등 배구단체 공금을 횡령한 전남배구협회 전무이사 이모(48)씨, 대학배구연맹 전무이사 김모(52)씨 등 2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 협회와 연맹 등 소속 직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고배구연맹 전무이사 이모(62)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춘계전국남여중고배구연맹전과 관련,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행사지원금 1억 3000만원 가운데 60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결산서에는 해남군으로부터 6100만원만 받은 것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 해 전국대학배구추진대회와 관련해 전남배구협회 이씨와 짜고, 함평군으로부터 받은 행사지원금 1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씨와 함께 6000만원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연맹 장부에는 1억원을

모두 행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국민 협의를 받고 있다.

중고배구연맹 이씨는 지난 2006년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개최과정에서 옥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사지원금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결산서에는 옥천군으로부터 2500만원만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행사지원금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한 후 정산서 조작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 기소된 11명은 이들 구속된 간부들의 횡령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나원침 (8507) 김장두



### “월동채소 가격폭락 정부가 보상해야”

#### 광주·전남농민회

월동채소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1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사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산물 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저장양과 농가들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수확기가 다가오면 조생양과 가격마저 폭락할 것이다”며 “지난 2010년 배추 과잉 이후 정부가 재배를 권장한 배추와 막대한 양을 수입하는 대파로 인해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산물 안정 대책으로 ▲농식품부 월동채소 최저예시가 현실화 ▲가격 폭락 시 생산비 보장 대책 수립 ▲전체 발착물에 대한 발착불제 적용 ▲국회 차원의 주산지보호특별법 제정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 상·하한제 시행 ▲한중FTA 체결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경민기자 kki@



눈·눈·움츠린 시민들 광주·전남지역에 신발적으로 눈이 내린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진득 움크린 채 눈보라를 헤치며 길을 가고 있다. 22일 광주·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늦게부터 전남 남해안 지역에 10~30mm, 그외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법관 연임심사 더 투명해야”

## 광주지법 판사회의 34명중 31명 참석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은 21일 오후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연임심사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대평가방식인 근무평정에 의한 심사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광주 판사회의에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34명의 단독판사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들 판사들은 1시간45분 동안 서기호 판사 연임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법관연임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토론

했다. 광주지방법원 문방진 공보관사는 “대법원이 법관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급 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법원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독판사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늘(22일) 지대은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시위 재판 개입’ 파동과 관련해 지난 2009년 5월 19일 열린 이후 2년여 만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9개 방조제 공사 입찰 담합 130억 낙찰

# 건설사 대표 등 17명 적발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21일 무안·신안군 발주 9개 방조제 공사에 사전담합한 뒤 입찰에 참여, 130억원대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대표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찰아 조사중이다.

또 공사나누먹기를 묵인한 공무원(직무유기) 1명, 건설사 직원(사문서 위조)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건설업체 대표 A(41)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무안·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공사 발주 계획을 사전에 알고 시공실적이 높은 업체들을 사전에 찾아가 자신들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 자신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독공무원(54·6급)은 실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시공경험이 없는 건설사에서 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

의다. 이 밖에 건설사 직원 B(여·48)씨는 건설협회 명의 실적증명서를 위조, 업체가 군청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또 C(54)씨는 지난 2008년 모 신문 기자 재직 당시 다른 건설업자에게 방조제 공동도급 협정업체를 소개해 주고 알선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현장에 찾아가 취재를 빌미로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입찰 자격이 제한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유사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40대女 두자녀와 투신 자살

## 광주 북구서... 우울증·돈 문제 스트레스 겹친 듯

어머니가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투신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수년전부터 우울증을 겪던 이 40대 여성은 최근 사업으로 인해 사채까지 빌리는 등 가정 형편이 곤란해지자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왔으며, 결국 자신은 물론 딸(12)과 아들(4)의 목숨까지 버리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20일 모 아파트 화단에 A(여·43·광주시 남

구)씨와 초등학교 5학년 딸(12), 아들(4) 등 일가족 3명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이들 옆에 있던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A씨와 자녀들은 같은 날 오후 7시 59분께 이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이들이 이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신 직전에 “어머니와 딸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4살짜리 아들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에는 신체적 조건상 무리가 있고, 12살 딸도 심리적 으로 자살에 동조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인에 대한 다각적

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의 옷에서는 “동부경찰서 B씨 고소건 폭 진실을 규명해달라. 단순하게 우울증으로 비화되지 말고 그 한사람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라고 적힌 A4 용지 1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남편(49)이 커피숍 개업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 B(여·38)씨를 횡령혐의로 광주동부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에서 커피숍을 운영중인 A씨의 남편은 지난해 새로운 커피숍을 열기 위해 지난해 7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B씨에게 의뢰했다가 절반인 7500만원을 사기당했다며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A씨가 커피숍 인테리어공사 고소 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가정 형편이 조들리자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술 그만 마셔라” 핀잔에 여관 불 질러

○“술 마시지 말라”는 숙박업주의 핀잔에 화가 나 자신이 묵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서행.

○“21일 전주 덕진경찰에 따르면 공모(43·무직)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여관에 주인 김모(여·57)씨가 자신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충고하자 화김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것.

○“공씨는 사건 5개월 전부터 이 여관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불을 지른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3월 2일